

보 도 자 료



*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홍보팀
팀장 이지영 / 담당 조하나
Tel : 032-770-8630, 8632
Fax : 032-770-8429
◆ 2018. 5. 28. 배포
◆ 총 4쪽 (본문 2쪽, 붙임 2쪽)

극지연구소, 제24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개최

-우주에서 미생물까지, 최신 남극연구 결과 발표 및 과학협력의 장 마련-

□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남극 세종과학기지 30주년을 기념하며 ‘남극 발자취 30년: 회고와 전망’ (‘30 years of footsteps in Antarctica: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이라는 주제로 극지연구소에서 제24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The 2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s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등 11개국 250여명의 극지연구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주/고층대기를 다루는 극지기후과학연구부터 미생물의 생태역학을 다루는 극지생명과학연구까지 5개 분야에서 최신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조 강연으로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 회장 Steven L. Chown 박사가 ‘미래를 위한 선택: 글로벌 환경에서의 남극 과학의 역할’ (‘Choosing our Future: Antarctic Science in a Global Setting’) 이라는 주제로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과학의 중요성을 짚고, 이를 위한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의 역할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해 논한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Institute for Basic Science, Center for Climate Physics) 단장 Axel Timmermann 박사가 ‘남극 빙하 붕괴와 빙산 용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둔화’ (‘Global Warming Slowdown due to Collapsing Antarctic Ice Sheets and Melting Icebergs’)라는 미래 기후와 해수면 상승 전망 예측을 위한 기후와 빙하의 되먹임 기전(Feedback Mechanism)의 중요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은 “우리나라 극지연구는 1988년 2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을 시작으로 2004년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2014년 장보고과학기지 준공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30년간의 남극연구 성과를 돌아켜보고 미래 남극연구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붙임: 제24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세부계획(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국제협력팀 신형철 부장(☎ 032-770-8430/8432)이나 홍보팀 조하나 행정원(☎ 032-770-8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4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세부계획

1. 추진 배경

- 가. 우리연구소는 매년 극지연구 최신 동향 파악과 공유, 네트워킹 및 구체적 공동연구 협의를 위한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매년 양일간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와 남극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다산기지 등의 극지인프라를 활용하여 활발히 수행한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대외에 피력

2. 제24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의 목적 및 기능

- 가. 목적 : 네트워킹 강화와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기회 부여
- 나. 기능
- 1) 다학제 공동연구 발굴을 위한 다자협회의 기회 제공
 - 2)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젊은 과학자 육성

3. 행사 개요

가. 기간 : 2018.5.28. ~ 6.1.

일자	구분	내용
5.28.	환영행사	- 환영리셉션
	부대행사	- LIONESS-WRS 워크숍
5.29.	본 행사	- 개회식 - 기조강연과 구두 발표 세션 운영 - 젊은 과학자 대상 오찬행사 - 포스터 발표 세션 운영
		- 기조강연과 구두 발표 세션 운영 - 포스터 발표 세션 운영 - 공식 만찬, 우수포스터 수상식과 폐회식
5.30.	부대행사	- 공식 만찬, 우수포스터 수상식과 폐회식
6.1.		- 세미나와 워크숍 운영

나. 장소 : 극지연구소 내 대강당과 회의 시설 등

다. 규모 : 국내·외 연구자 250명 내외

라. 주제 : “남극 발자취 30년 : 회고와 전망”*

* 영문명 : 30 years of footsteps in Antarctica: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마. 세션 : 6개 세션 운영, 초청 기조강연 2건(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회장 Steven L. Chown 박사와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장 Axel Timmermann), 구두 발표 36건, 포스터 발표 59건(국내외 연사)

4. 주요 일정

일자	시간	내용	장소
5.28.	18:30-20:00	- 환영리셉션	쉐라톤 호텔
	10:00-18:00	- LIONESS-WRS 워크숍	펭귄 세미나실
5.29.	08:30-09:00	- 등록	대강당
	09:00-09:30	- 개회식과 기념촬영	대강당
	09:40-10:20	- 기조강연 1. Steven L. Chown	대강당
	10:30-12:30	- S1. Earth's atmosphere and space environment observed from the Antarctica	대강당
		- S2. Ocean and cryosphere changes around the Antarctica I	세종 회의실
	12:30-14:00	- 오찬	본관 1층
		- 젊은 과학자 대상 오찬행사	북극곰 세미나실
	14:10-16:20	- S3. Glacier history around the Antarctic Peninsula	대강당
	16:30-18:00	- 커피 브레이크와 포스터 발표 세션	대강당
	5.30.	08:30-09:00	- 등록
09:00-09:40		- 기조강연 2. Axel Timmermann	대강당
09:40-11:50		- S4. Ocean and cryosphere changes around the Antarctica II	대강당
12:00-13:00		- 오찬	본관 1층
13:00-15:20		- S5. Ecological dynamics and biotechnological potential of Antarctic organisms	대강당
15:20-15:50		- 커피 브레이크와 포스터 발표 세션	대강당
15:50-18:00		- S6. Chronicle of geoscience in Antarctica: From the Era of Peninsula to the Age of Continent	대강당
18:00-19:30		- 공식 만찬, 우수포스터 수상식과 폐회식	본관 1층
5.31.	09:00-18:00	- 세미나와 워크숍 운영	소내 회의시설
6.1.			